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영향요인

한종숙*

¹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Factors Affecting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Life

Jong-Sook Han*

¹Red Cross College of Nursing, Chung-A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333명으로, 정서지능,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를 설문지로 측정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4년 10월 20일부터 12월 8일까지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t-test, one 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서지능, 종교,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였으며, 모델의 설명력은 27.2%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대학생활 적응을 위해서는 정서지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전략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factors that influence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life. Self-report questionnaire surveys were conducted toward 333 South Korean nursing students to measure emotional intelligence,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and clinical stress. Data were collected from October 20th to December 8th, 2014.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using t-test, one way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indicated that emotional intelligence, religion,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significantly influenced on the adjustment to college life and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model was 27.2%. Based on the study results, we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apply the educational strategy to improve the emotional intelligence for the adjustment to college life.

Keywords : Adjustment, Clinical Stress, Emotional Intelligence,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대학생 시기는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과 더불어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하는 초기 성인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자아 정체성 확립, 취업 등의 과업을 달성해야하는 중요한 시기이다[1]. 따라서 대학생활의 적응 정도에 따라 현재 생활뿐만 아니라 미래의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2]. 대학생활에 적응한다는 것은 대학이라는 환경 속에서 학업 및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

가는 적절한 반응을 의미한다[3].

간호대학생은 강의실에서 습득한 이론적 지식을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 임상실습교육을 수행하게 된다. 임상이라는 낯선 환경에서 다양한 심리적 특성을 지닌 간호대상자나 보호자, 의료진과 인간관계를 형성하면서 실습을 수행해야 하며, 과학적 지식에 근거한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감, 예상치 못한 위기상황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한다[4,5]. 이러한 내·외적 어려움과 상황적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성공적인 대학생활 적응을 위해 중요하다[6].

대학생활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Corresponding Author : Jong-Sook Han(Chung-Ang University)

Tel: +82-2-820-5994 email: jshan@cau.ac.kr

Received May 15, 2015

Accepted July 16, 2015

Revised (1st June 4, 2015, 2nd June 16, 2015, 3rd July 7, 2015)

Published July 31, 2015

정서지능, 자아탄력성, 심리적 안녕감 등의 변수들이 제시되고 있으며[1,7], 정서지능이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중요한 영향요인을 강조하였다[8]. 정서지능은 자신이나 타인의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언어나 행동으로 표현하며, 정서적 정보를 활용하고 조절하는 능력이다[9]. 동일하게 어려운 상황에서 정서적 정보를 유용하게 활용하는 능력이 있을 경우 적응적으로 기능한다[10]는 측면에서, 대학생활 적응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정서지능을 확인해 보는 것은 필요하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완벽주의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완벽성의 추구보다는 타인에게 완벽하게 보이려는 대인 관계적 측면의 표현적 욕구로[11], 체면과 예의가 중시되는 한국문화에서 타인의 평가는 매우 중요하게 작용된다[12]. Lee & Suh[13]의 연구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높은 대학생은 낮은 대학생에 비해 사회적 상황에서 실수를 하지 않으려 하고 타인의 시기에 과도하게 신경을 쓰며 타인과의 조화를 중시하였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단순히 타인에게 완벽하게 보여지기 위해 출발하나 극단으로 향하게 되면 다양한 심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다[11]. 선행연구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대인관계 불안[14], 사회적 불안[15,16], 섭식장애[17], 외로움[18] 등과 관련이 있음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간호대학생의 경우, 간호대상자나 임상실습 지도자에게 완벽하게 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인정받으려는 욕구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대학생활 적응과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의 관계 및 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대학생활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있었고[19,20], 자아존중감도 낮았으며[5] 자아탄력성도 낮았다[21].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성공적인 대학생활 적응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개인 심리적 변인뿐만 아니라 환경적 변인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정서지능, 사회적 지지 등의 사회심리적 특성들을 주요 변인으로 다루었다[7,8,22,2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결과에 근거하여 개인 심리적 변인인 정서지능,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 환경적

변인인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연구에 필요한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을 파악하고, 대학생활 적응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정도와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의 차이를 파악한다.
- 둘째,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서지능,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셋째,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대상자는 본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서면 동의한 간호대학생으로 C시와 K시 소재 2개의 대학 재학생이며 1년 이상 임상실습 과정을 수료한 학생 333명이었다. 대상자 크기의 적절성 평가를 위해 G*power 3.1.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중간정도의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독립변수 8개를 포함하여 계산한 결과 표본크기가 최소한 160명으로 제시되어, 본 연구는 필요한 표본수를 충족하였다[24].

자료 수집기간은 2014년 10월 20일부터 12월 8일까지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먼저 연구대상 해당 학교의 3, 4학년 강의에 들어가는 교수에게 양해를 구해 허락을 받았고,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절차 및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인해 해를 입지 않음과 수집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하고 연구목적 이외에

는 사용하지 않으며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나 설문조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에 대해 설명한 후,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았다.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한 대상자에 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대학생활 적응

대학생활 적응은 Jeong & Park[25]이 개발한 대학생활 적응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학업활동(4문항), 진로준비(4문항), 개인심리(4문항), 대인관계(4문항), 사회체험(3문항) 등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는 5점으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개발당시 .8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4였다.

2.3.2 정서지능

정서지능은 Wong & Law[26]가 개발하고 Han & Yoo[27]가 번안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자기정서 인식(4문항), 타인정서 인식(4문항), 정서활용(4문항), 정서조절(4문항)에 대한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는 5점으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지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Han & Yoo[27]의 연구에서 .91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0이었다.

2.3.3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Hewitt 등[11]이 개발하고 Ha[28]가 한국문화에 맞는 문항들을 추가하여 타당화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완벽주의적 자기노력'(8문항),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적'(5문항),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적'(6문항) 등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는 7점으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Ha[28]의 연구에서 .85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7이었다.

2.3.4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Beck & Srivastava[29]가 개발

하고 Kim & Lee[5]가 수정·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실습교육 환경(5문항), 바람직하지 못한 역할 모델(6문항), 실습업무 부담(4문항), 대인관계 갈등(4문항), 환자와의 갈등(5문항) 등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는 5점으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는 Kim & Lee[5]의 연구에서 .9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4였다.

2.4 자료 분석

수집한 자료는 PASW Win 2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대학생활 적응, 정서지능,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및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실수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 차이는 t-test, one way ANOVA로 분석하였다. 대학생활 적응과 관련 요인 간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은 입력 방법의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학생활 적응과 관련 요인들의 정도

대학생활 적응의 평균평점은 5점 만점에 3.27점이었고, 하위요인별 점수는 대인관계, 사회체험, 진로준비, 개인심리, 학업활동 순으로 대인관계 요인이 2.84점으로 가장 낮았다. 정서지능은 5점 만점에 평균 3.59점이었으며, 하위요인별로는 정서조절이 3.29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다음은 정서활용, 타인 정서인식, 자기 정서인식 순이었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7점 만점에 평균 4.34점이었으며, 하위요인별로는 불완전함 은폐노력-행동적 요인이 5.2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불완전함 은폐노력-언어적, 완벽주의적 자기노력 순이었다.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5점 만점에 평균 3.12점이었고, 하위요인별로는 실습교육환경, 실습업무부담, 바람직하지 못한 역할모델, 대인관계 갈등, 환자와의 갈등 순으로 실습교육환경이 3.58점으로 가장 높았다[Table 1].

Table 1. Means of variables for the subjects (N=333)

Variable	M±SD
Adjustment to College life(1-5)	3.27±1.07
interpersonal relation	2.84±1.05
experience society	2.87±1.14
career presentation	2.96±0.95
personal psychology	3.71±0.89
academic activity	3.86±0.85
Emotional intelligence(1-5)	3.59±0.80
regulation of emotion	3.29±0.91
use of emotion	3.59±0.78
others emotional appraisal	3.70±0.70
self emotional appraisal	3.79±0.73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1-7)	4.34±1.39
nondisplay of imperfection	5.24±1.26
nondisclosure of imperfection	4.04±1.30
perfectionistic self -promotion	4.01±1.30
Clinical stress(1-5)	3.12±1.09
educational environment of clinical practice	3.58±0.97
clinical working loading	3.49±1.06
unsuitable role model	3.14±1.05
conflic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	2.69±1.05
conflict with patient	2.69±1.04

3.2 일반적 특성 및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2.16세였고, 성별은 여자가 96.7%였다. 학년별은 3학년이 55.3%이었고, 종교가 없는 경우가 61.0%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대학생활 적응은 유일하게 종교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종교가 있는 학생이 3.40점, 종교가 없는 학생이 3.20점이었($t=-3.46, p=.001$)[Table 2].

Table 2. Adjustment to college life by demographic variables (N=333)

Characteristics	n(%)	M±SD	t/F	p
Age		22.16±2.72		
≤ 21	163(49.0)	3.23±0.47	1.54	.217
22-23	128(38.4)	3.34±0.59		
≥ 24	42(12.6)	3.23±0.60		
Gender			1.62	.106
Male	11(3.3)	3.53±0.62		
Female	322(96.7)	3.27±0.53		
Grade			0.09	.930
3rd	184(55.3)	3.28±0.52		
4th	149(44.7)	3.27±0.55		
Religion			-3.46	.001
No	203(61.0)	3.20±0.49		
Yes	130(39.0)	3.40±0.58		

3.3 대학생활 적응과 관련 변인과의 상관관계

대학생활 적응은 정서지능($r=.50, p<.001$), 완벽 주의적 자기제시($r=.16, p=.003$)와 정상관계가 있었다. 또한 정서지능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r=.14, p=.011$)와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임상실습 스트레스($r=.15, p=.007$)와 정상관계가 있었다[Table 3].

3.4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대학생활 적응을 종속변수로 하고 정서지능,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하게 차이를 보인 변수 중 명목척도인 종교는 가변수로 변환한 후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증한 결과, 오차의 자기상관 검증에서는 Durbin Watson 통계량이 1.886으로 자기상

Table 3. Correlation among variables

(N=333)

Variables	Adjustment to college life r(p)	Emotional intelligence r(p)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r(p)	Clinical stress r(p)
Adjustment to college life	1			
Emotional intelligence	.50(<.001)	1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16(.003)	.14(.011)	1	
Clinical stress	-.07(.233)	-.02(.753)	.15(.007)	1

Table 4. Factors affecting adjustment to college life

(N=333)

Variables	B	SE	β	t	p	Adjustment R ²	F(p)
Constant	22.626	5.184		4.36	<.001	.272	31.93(<.001)
Emotional intelligence	.587	.059	.472	9.95	<.001		
Religion(yes)*	2.965	.943	.148	3.15	.002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075	.036	.100	2.10	.037		
Clinical stress	-.061	.042	-.069	-1.45	.149		

*Dummy variable

관이 없었고, 다중공선성 문제는 공차한계(tolerance)가 .958-.996으로 1.0이하로 나타났으며, 분산팽창인자 (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도 1.001-1.025로 10을 넘지 않아 문제를 배제할 수 있었다. 잔차의 가정을 충족하기 위해 선형성, 오차항의 정규성, 등분산성의 가정도 만족하였으며, 특이값을 검토하기 위한 Cook's distance 값은 1.0을 초과하는 값이 없어 회귀분석 결과는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서지능($\beta = .472, p < .001$), 종교($\beta = .148, p = .002$), 완벽주의적 자기제시($\beta = .100, p = .037$)가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F = 31.93, p < .001$), 이들 3개 변수의 설명력은 27.2%였고, 정서지능이 대학생활 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4].

4. 논의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 정도는 3.27점(5점 만점)이었고, 하위요인별로는 대인관계가 가장 낮았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Lee & Eo[20]의 3.03점, Kwag[6]의 2.99점(5점 환산), Choi & Park[30]의 2.96점보다 다소 높았으며 Lee, Moon & Park[31]의 3.23점과 유사하였다. Kim & Jang[19]의 연구에서 대학생활 적응의 하위영역 중 대인관계 요인이 다른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Jeong & Park[25]은 우리나라 학생들이 대인관계를 중요하면서도 어려워하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간호대학생은 임상현장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형성해야하므로 대인관계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에 대하여 임상실습 전, 교육과정에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실습’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서지능, 종교,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생활 적응의 27.2%를 설명하였다. 이 중 가장 높은 영향력을 나타낸 요인은 정서지능으로, 그 정도는 평균 3.59점(5점 만점)이며,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1,8,23,32]와 유사하여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은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활용하기 때문에 사회적응 능력이 높아 성공적으로 대학

생활에 적응할 가능성이 높다[8,33]. 본 연구에서 정서지능의 하위요인 중 정서조절과 정서활용이 낮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이 자신과 타인의 정서를 조절하거나 적응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이 부족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성공적인 대학생활 적응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활용하여 창의적 사고와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서지능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 종교는 대학생활 적응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Lee, Moon & Park[31]은 종교유무에 따라 대학생활 적응에 차이가 있다고 하였으나, Choi & Park[30]은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종교를 택하는 사람들의 태도, 동기, 체험의 정도에 따라 종교의 가치와 영향력이 다르며[34], 특히 간호학은 인간중심의 전인간호를 강조하고 간호대상자의 병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심리적, 영적 건강개념을 포함하기 때문에 종교가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선행연구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주로 심리적 부적응에 대한 주요요인으로 확인되었는데, Kim[17]은 섭식장애의 예측요인으로, Baek[15]은 사회적 불안의 예측요인으로 제시하였다. Lee & Suh[13]는 평균 3.94점(7점 만점으로 변환) 기준으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높은 대학생 군과 낮은 대학생 군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평균 4.34점으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 성향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측정도구가 달라 직접비교는 어렵지만, 영역별 완벽주의 성향과 대학생활 적응 간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결과[35], 자기지향 완벽주의는 대학생활 적응에 적응적인 영향을,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는 부적응적인 영향을 주었고, Ha & Jo[36]는 개인기준 완벽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평가염려 완벽주의 성향이 약할수록 대학생활에 적응적이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인관계 측면이나 타인에게 평가되는 영역의 완벽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에 부적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확대 해석할 수 있다.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완벽성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타인에게 완벽하게 보이고 싶은 욕구이므로 사회적 완벽주의, 평가염려 완벽주의 성향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완벽주의적 자기제시는 대학생활 적응과 미미하지만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대학생활 적응의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어 선행연구와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인간의 생명을 다루

는 간호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자신의 완벽함을 임상 현장이라는 공적인 상황에서 분명하게 나타내고자 하는 욕구가 적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동일 측정도구로 간호대학생과 일반대학생을 비교해보는 것과 질적 분석을 통해 재확인되어야 할 것이며, 대학생활 적응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 또는 다른 요인과의 매개효과인지에 대해서도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간호대학생은 이론적 지식뿐만 아니라 임상실습을 통해 실무수행능력을 습득하게 되는데, Kim & Jang [19]의 연구결과, 임상실습은 간호대학생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을 때 실습에 대한 두려움 뿐 아니라 대학생활 적응을 힘들게 하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대학생활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19]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여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대학생활 적응은 역상관계가 있었다 [22]. 본 연구에서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대학생활 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선행연구와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에 따라 실습 운영체계에 실습환경이 각기 다르기 때문으로 사료되나 추후 연구를 통해 재확인이 필요하다.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 규명함으로써 성공적인 대학생활 적응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전략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서지능, 종교, 완벽주의적 자기제시였고, 27.2%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이들 요인 중 정서지능이 가장 높은 영향력을 나타냈으며,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환경적 요인보다는 심리내적인 요인을 향상시키는 것이 성공적인 대학생활 적응을 위해 중요함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추후 연구를 제언한다. 첫째, 본 연구 대상은 일정 지역의 간호 대학생을 편의 표집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으므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추후 반복연구와 다른 요인들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

요하다. 둘째, 성공적인 대학생활 적응을 위해 정서지능 증진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하는 것을 제언한다.

References

- [1] J. H. Choi,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ego-resilience 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2008.
- [2] K. H. Kim, "Correlation of stress-coping, humor sense, and adaptation to college of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4, No.3, pp. 301-313, 2014.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4.14.03.301>
- [3] S. J. Lee, J. H. Yu, "The mediation effect of self-efficacy between academic and career stress and adjustment to college",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22, No.3, pp. 589-607, 2008.
- [4] H. Y. Koo, H. S. Im, "Comparison of factors influencing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between associate and bachel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3, No.1, pp. 311-321, 2013.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3.13.01.311>
- [5] S. L. Kim, J. E. Lee, "Relationship among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self-esteem in nursing students taking clinical experienc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1, No.1, pp. 98-106, 2005.
- [6] Y. K. kwag, "Effect of self-esteem, ego-resilience, social support on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4, No.5, pp. 2178-2186, 2013.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3.14.5.2178>
- [7] E. A. Kim, K. I. Park, "Factor affecting adjustment of freshmen nursing students to college lif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0, No.2, pp. 234-243, 2014.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4.20.2.234>
- [8] H. T. Park, "A study on the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in first year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5, No.3, pp. 1576-1583, 2014.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4.15.3.1576>
- [9] P. Salovey, J. D. Mayer, "Emotional intelligence", Imagination, cognition, and Personality, Vol.9, pp.

- 185-211, 1990.
- [10] P. N. Lopes, M. A. Brackett, J. B. Nezleck, A. Schutz, I. Sellin, P. Salovey, "Emotional intelligence and social interact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30, pp. 1018-1034, 2004.
DOI: <http://dx.doi.org/10.1177/0146167204264762>
- [11] P. I. Hewitt, G. L. Flett, S. B. Sherry, M. Habke, M. Parkin, R. W. Lam, B. McMurtry, E. Ediger, P. Fairlie, M. B. Stein, "The interpersonal expression of perfection: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84, No.6, pp. 1303-1325, 2003.
DOI: <http://dx.doi.org/10.1037/0022-3514.84.6.1303>
- [12] S. C. Choi, K. B. Kim, "The internal structure of the Korean social face(Chemyon)",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Vol.14, No.1, pp.185-202, 2000.
- [13] D. G. Lee, H. N. Suh, "The characteristics of high and low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in college Students",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11, No.1, pp. 91-110, 2010.
DOI: <http://dx.doi.org/10.15703/kjc.11.1.201003.91>
- [14] J. B. Cho,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and interpersonal anxiety : Mediation effect of self-criticism", Unpublished master's thesis, Kwangwoon University, 2015.
- [15] S. H. Baek, "The mediating effects of emotional awareness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between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and social anxie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buk National University, 2012.
- [16] D. J. Kim, "The effect of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on social anxiety: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self-effica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2013.
- [17] S. J. Kim, "The effects of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and body dissatisfaction on the eating disorder symptoms",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2008.
- [18] B. N.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and loneliness: The mediating effect of soothing abil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2014.
- [19] E. A. Kim, K. S. Jang, "Developing a prediction model regarding adjustment of nursing students to college life",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8, No.2, pp. 312-322, 2012.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2.18.2.312>
- [20] J. W. Lee, Y. S. Eo, "Effect of clinical stress and stress coping on college adjustment in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ol.7, No.2, pp. 125-134, 2013.
DOI: <http://dx.doi.org/10.12811/kshshsm.2013.7.2.125>
- [21] E. J. Shin, Y. S. Park, "Emotional intelligence, ego resilience, stress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4, No.11, pp. 5636-5645, 2013.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3.14.11.5636>
- [22] K. H. Yang, J. R. Lee, B. N. Park, "Factors affecting adaptation to school life of freshmen enrolled in nursing at a junior colleg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18, No.1, pp. 5-13, 2012.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2.18.1.005>
- [23] H. J. Jung, H. I. Chung, "Effects of self-esteem, emotional intelligence and social support on college adjustment in first year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Vol.21, No. 3, pp. 188-196, 2012.
DOI: <http://dx.doi.org/10.12934/jkpmhn.2012.21.3.188>
- [24] F. Franz, "Statistical power analyses using G*power 3.1: Tests for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is", *Behavior Research Methods*, Vol.41, No.4, pp. 1149-1160, 2009.
DOI: <http://dx.doi.org/10.3758/BRM.41.4.1149>
- [25] E. I. Jeong, Y. H. Park,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ollege adjustment scale",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 Methodology Studies*, Vol.21, No.2, pp. 69-92, 2009.
- [26] C. S. Wong, K. S. Law, "The effect of leader and follower emotional intelligence on performance and attitude: An exploratory study", *The Leadership Quarterly*, Vol.13, No.3, pp. 243-274, 2002.
DOI: [http://dx.doi.org/10.1016/S1048-9843\(02\)00099-1](http://dx.doi.org/10.1016/S1048-9843(02)00099-1)
- [27] J. H. Han, T. Y. Yoo "Leader's emotional intelligence, subordinate's emotional intelligence, stress, turnover intention, trust, leader-member exchange",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Vol.18, No.1, pp. 177-199, 2005.
- [28] J. H. Ha, "Development and validation study of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scale-korean version",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12, No.4, pp. 1211-1230, 2011.
- [29] D. L. Beck, R. Srivastava, "Perceived level and sources of stress in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Vol.30, No.3, pp. 127-133, 1991.
- [30] J. H. Choi, M. J. Park "Methodological triangulation

method to evaluate adjustment to college life in associate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3, No.7, pp. 339-349, 2013.

DOI: <http://dx.doi.org/10.5392/JKCA.2013.13.07.339>

- [31] G. W. Lee, I. O. Moon, S. K. Park,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college adjustment and academic adjustment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chool Health Education, Vol.14, No.2, pp. 15-27, 2013.
- [32] S. H. Baek, “The effects of student’s emotional intelligence and perception of college environmental climate on the adaptation to college”,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seo University, 2013.
- [33] Y. L. Moon, “Developing emotional intelligence programs for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Journal of the college of education, Vol.62, pp. 27-53, 2001.
- [34] E. S. Jung “The influence of the propensity of religion and the adaptation to college life on the subjective well-be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oung Theological University, 2010.
- [35] C. H. Song “A study of the domain specificity of perfectionism, self-efficacy, and student adjustment in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2010.
- [36] J. H. Ha, H. J. Jo, “The relationships among perfectionism, stress, the ways of stress coping, self-efficacy, college adjustment”,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7, No.2, pp. 595-611, 2006.

한 종 숙(Jong-Sook Han)

[정회원]



- 1985년 8월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간호대학 (간호학석사)
- 2006년 2월 :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간호대학 (간호학박사)
- 2006년 3월 ~ 2011년 10월 : 적십자간호대학 조교수
- 2011년 10월 ~ 현재 :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조교수

<관심분야>

정신건강, 간호교육